

##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재입지 특성과 산업공동화에 관한 연구\*

권오혁\*\* · 최홍봉\*\*\* · 김은영\*\*\*\*

**요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혹은 재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거리와 이전 지역의 특성(이동방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이것들과 기업들의 자체 특성을 비교·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은 전출 기업 수가 전입기업 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교외화 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수도권과의 기업이동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이전의 빈도는 거리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중력모형 등 인구이동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기업 이전의 방향은 광역시 간의 수평적 이동이 적는데 대해 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현저히 많았고 이러한 현상은 거리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함의는 향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부산지역, 기업이전, 재입지, 산업공동화

### 1. 들어가며

어떤 지역의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활용된다. 지역 내 기업의 성장률, 창업률, 고용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경제지표들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지역경제의 상황을 지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기업들의 전입 및 전출상황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의 전출입은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과 산업적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특정 지역으로 전입해온다면 그 지역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전입 기업보다 전출 기업이 더 많다면 쇠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 현상과 함께 기업들의 역외 투자나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유치나 역외 이전은 지역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산지역은 1980년대 이래 지역 주력산업의 역외이전과 쇠락현상이 지속되어 온 데 반해 역외 기업들의 부산지역 내 전입이 부진한 바, 그것이 지역경제 침체의 한 요인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은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전국 대비 GRDP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부산광역시가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B00269)

\*\* 부경대 경제학부 부교수

\*\*\*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부경대 경제학부 강사

으면서 울산, 창원, 김해 등 주변 산업도시들의 기생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서구의 대도시들이 경험한 바 있는 도시 공동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부산광역시에 있어서 제조업 감소는 대도시권의 확산에 따른 교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 기업들의 이전, 특히 주변 지역으로의 제조업 이전은 대도시권의 확산과정일 뿐으로, 행정구역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다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더하여 부산지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상대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산업고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문제는 정보서비스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이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역외 이전과 쇠락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부산지역 기업의 역외 진출을 교외화나 산업고도화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진출입 상황을 조사하고, 기업들의 이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진출입 기업들의 규모, 업종, 진출입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이전(혹은 재입지) 및 산업공동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부산지역 기업들의 진출입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한다. 특히 진출입 기업들의 이전거리와 이전 지역의 특성(이동방향) 등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이것들과 기업들의 자체 특성을 비교·고찰한다. 기업들의 이전거리는 근거리(대도시권 내), 중거리(광역지역 내), 원거리(전국적 범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은 거대도시권, 대도시지역,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부산지역의 진출입 기업이 이동한 거리와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업

이전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부산지역으로 전입,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공식 조사 자료로서, 포괄성과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이전(재입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실증적 조사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 있어서 일부 업종의 기업들의 이전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전 산업 부문에 있어서 기업 이전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근로복지공단의 기업 이전 자료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활용된 적이 없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자료의 산업 및 지역 분류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불일치하여 전면 재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자료의 재분류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되었음을 밝혀둔다.

##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 1)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기업의 이전(혹은 재입지) 및 산업공동화와 관련한 연구는 일종의 산업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체적인 성장이나 변화에 의해 이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는 기술, 시장 환경, 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따라서 재입지하기도 한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집중하여 번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번영이 지속되지 못하고 쇠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업의 이전에 대한 연구는 기업 입지론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되어왔다. 기업들의 입지 선택에는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들의 재입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A. Weber의 산업입지 모델과 같은 아주 간단한 모델로부터 실제적이고 복잡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업 이전에 있어서 영향 요소는

기업 이윤의 극대화라는 고전적 접근과 더불어 기업의 행태에 대한 행태주의적 분석, 그리고 산업기술의 변화, 기업조직 변화 등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기업의 입지이전 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업규모와 지역적 집적을 분석한 Carod & Antolin의 연구(2004)와, 신생기업의 설립을 통해 파생되는 고용규모를 추정한 Carlton의 연구(1983), 신생기업의 입지 과정을 산업의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접근한 Audretsch의 논문(1995), 기업규모와 입지패턴 간의 관계를 규명한 Belderbos의 연구(2002)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이한일·이변송(2002)이 수도권 내 제조업체의 이전행태를 분석하였고, 정수연(2008)은 상장 기업 및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입지이전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의 특성과 이전 지역의 특성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문남철(2006)은 수도권 지역 기업의 지방 이전에 있어서 수도권 분산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전기업의 입지패턴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제한된 지역에 대해 특정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거나 소수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이전을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산업 공동화의 분석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국가를 기준으로 산업공동화 문제를 접근하는 국민 경제의 공동화, 둘째 국가 내의 특정 지역에서의 지역경제의 공동화, 셋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특정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산업 공동화 관련 논의의 보다 핵심적인 쟁점은 산업 공동화 현상과 그것의 원인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산업공동화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 과정으로 볼 것인지, 혹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상실과정으로 설명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과 쟁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산업 공동화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인데, 이러한 분석들 역시 산업입지론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되어 왔다.

## 2)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전입, 진출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의 산업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가설을 제시하고 이론적인 검증용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산 지역으로 전입한 기업과 부산지역으로부터 진출한 기업들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실태)분석적 연구에 있어서도 조사와 분석의 기준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분석의 준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구의 체계성이 취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례연구로서 이론화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분석결과로서 일정한 경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분석 기준을 기본틀로 하여 부산지역 기업의 이전을 분석하려 한다. 첫 번째 분석 기준은 기업들의 국토공간 상 이전 방향이다. 부산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이 보다 작은 도시로부터 대도시나 혹은 거대도시로 이전(집중화)하는지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이전(분산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도시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이전방향을 고찰하는 것으로서, 도시 규모는 거대도시권(수도권), 대도시권(광역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 방향과 기업들의 업종 혹은 규모 특성 등과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둘째, 기업들의 이전 거리를 또 다른 분석기준으로 설정한다. 기업의 이전거리는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구분하는데, 근거리는 부산광역시와 인접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창원시와 인근의 시·군들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지역은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으로의 기업

표 1.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이전 방향과 거리 구분

이전방향		이전거리	근거리(대도시권 내)	중거리(영남지역 내)	원거리(전국적 범위)
집중화	전입		양산, 김해 → 부산 창원, 마산 → 부산	서부 경남 → 부산 경북 → 부산	기타지역(비영남권, 비수도권, 비대도시지역) → 부산
	전출		-	-	부산 → 수도권
수평이동	전입		울산 → 부산	대구 → 부산	광주, 대전 → 부산
	전출		부산 → 울산	부산 → 대구	부산 → 광주, 대전
분산화	전입		-	-	수도권 → 부산
	전출		부산 → 양산, 김해 부산 → 창원, 마산	부산 → 서부 경남 부산 → 경북	부산 → 기타 지역 (비영남권, 비수도권, 비대도시)

이전은 일종의 교외화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거리는 서부 경남지역과 대구, 경북지역을 포함하는 영남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지역은 부산과 2차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거리는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 거리를 주요한 분석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업들의 이전에 있어서 거리는 언제나 중요한 변수가 될 뿐 아니라, 특히 도시권의 확산에 따른 교외화 현상은 기업 이전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표 1〉은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이전거리와 이전 방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3.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이전 특성 분석

#### 1) 부산지역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의 일반적 특성 비교

부산지역에 있어서 기업들의 전출입 상황은 전입 기업에 대해 전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전입기업 대비 전출기업은 30% 가량 많은데, 이는 부산지역의 고용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현상을 부산지역이 신생기업들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 산업, 사업서비스업의 역외 이전이 두드러지는데 대해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은 전입이 활발하다. 특히 제조업은 전입기업 대비 전출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78.8%에 이르고 있고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98.2%라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부산지역 기업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에 300인 이상 업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산지역에 대규모 기업이 이미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통하는 것으로 부산지역의 산업적 침체를 보여주는 한 지표로 보인다.)

전입기업과 전출기업 간의 규모 상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출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입기업보다 많지만 전입기업 대비 전출기업의 평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전출기업 대비 전입기업 비율이 0.85 수준으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10인 이상 기업에 있어서는 전출기업 대비 전입기업 비율이 0.6 정도로 전출입기업의 수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의 경우 전입보다는 역외 이전이 현저히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규모가 큰 업체들이 교외지역이나 중소도시로 이전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대도시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산업분야 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규모의 차이가 전출입기업 수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중간 규모 기업의 역내 진입이 역외 유출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제조업의 역외 이전이 전출입 기업 간의 규모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업원 수가 많은데 대해 이 업체들의 역외 이전이 역내

표 2.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연도별 추이

단위: 개소, ( )안은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부산지역 전입기업(A)	113 (47.9)	77 (40.3)	129 (47.6)	104 (40.9)	79 (42.7)	502 (44.0)
부산지역 전출기업(B)	128 (53.1)	114 (59.7)	142 (52.4)	150 (59.1)	106 (57.3)	640 (56.0)
계	241 (100.0)	191 (100.0)	271 (100.0)	254 (100.0)	185 (100.0)	1142 (100.0)
A/B	0.88	0.68	0.87	0.69	0.75	0.78

표 3.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업종 특성

단위: 개소, ( )안은 %

구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계
표준산업분류 (2000년 8차 개정)	D	F	G	I, J	K, L	M	A, B, C, E, H, N, O, P, Q, R, S, T	
부산지역 전입기업(A)	89 (17.7)	126 (25.1)	122 (24.3)	28 (5.6)	5 (1.0)	83 (16.5)	49 (9.8)	502 (100.0)
부산지역 전출기업(B)	215 (33.6)	101 (15.8)	148 (23.1)	19 (3.0)	5 (0.8)	95 (14.8)	57 (8.9)	640 (100.0)
계	304 (26.6)	227 (19.9)	270 (23.6)	47 (4.1)	10 (0.9)	178 (12.9)	106 (9.3)	1142 (100.0)
A/B	0.41	1.25	0.82	1.47	1.00	0.87	0.86	0.78

전입을 압도하고 있어서, 전출입 기업들 간 규모의 차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보다는 기계·금속, 화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 기업의 전출입이 활발하다. 경공업 분야 기업의 전출입은 전체의 17.8%에 불과하며 중화학공업 분야가 82.2%를 차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 내에서 전출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업종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이는 부산이 이미 전통적인 경공업 도시를 탈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신발산업과 의류·봉제 산업의 지속적인 쇠락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래에 기계·금속산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산업은 동남권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산지역 제조업 중 전입이 가장 활발한 산업분야는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업, 인쇄 및 출판업, 나무 및 나무용품 제조업(가구 포함) 등이다. 이 중에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특별히 높은 비중(45.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지역이 이 산업분야로 점차 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체 중 역외 전출보다 역내 전입기업의 수가 많은 업종은 전혀 없으며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해서 전출 대비 전입기업 비율을 구해보면 두 제조업 분야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기타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은 전출 대비 전입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나무 및 나무용품 제조업, 1차금속제품 제조업은 전입기업 대비 전출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표 4.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규모 분포

단위: 개소, ( )안은%

기업규모(산재보험 가입자수) 전출입 기업	1-3인	4-9인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계
전입 기업(A)	247 (49.2)	165 (32.9)	61 (12.2)	21 (4.2)	8 (1.6)	502 (100.0)
전출 기업(B)	295 (46.0)	193 (30.2)	101 (15.8)	38 (6.0)	13 (2.0)	640 (100.0)
계	542 (47.5)	358 (31.3)	162 (14.2)	59 (5.2)	21 (1.8)	1142 (100.0)
A/B	0.84	0.85	0.60	0.55	0.62	0.78

표 5. 부산지역 전출입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전출입 비율(전입기업/전출기업)

구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계
1-3인	0.40	1.53	0.90	1.00	1.00	0.86	1.04	0.84
4-9인	0.44	1.30	0.75	2.33	1.50	1.09	1.00	0.85
10-29인	0.39	0.82	0.75	3.00	0.00	0.73	0.20	0.60
30인 이상	0.42	0.63	0.67	2.00	0.50	0.63	1.00	0.62
계	0.41	1.25	0.82	1.47	1.00	0.87	0.86	0.78

표 6. 부산지역 전출입 제조업체의 산업분야

단위: 개소, ( )안은 %

구분		전입기업(A)	전출기업(B)	계	A/B
경공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7 (7.9)	8 (3.8)	15 (5.0)	0.88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1 (1.1)	11 (5.3)	12 (4.0)	0.09
	나무 및 나무용품 제조업, 가구포함	3 (3.4)	10 (4.8)	13 (4.4)	0.30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5 (5.6)	8 (3.8)	13 (4.4)	0.63
	소계	16 (18.0)	37 (17.7)	53 (17.8)	0.43
중화학공업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9 (10.1)	35 (16.7)	44 (14.8)	0.26
	비금속광물제품	4 (4.5)	6 (2.9)	10 (3.4)	0.6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1 (12.4)	35 (16.7)	46 (15.4)	0.31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5 (39.3)	76 (36.4)	111 (37.2)	0.46
	기타제조업	14 (15.7)	20 (9.6)	34 (11.4)	0.70
	소계	73 (82.0)	172 (82.3)	245 (82.2)	0.42
계	89 (100.0)	209 (100.0)	298 (100.0)	0.43	

## 2) 부산지역 전입기업의 업종, 규모 및 전출지 특성

부산지역으로 전입한 기업의 대다수는 부산 인근의 근거리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기업이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이 3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인근 지역 내에서 근거리 이전한 기업 중에서는 김해, 양산 등 중소도시에서 이전한 경우가 29.3%인데 비해 창원, 마산 등 중도시의 이전 업체가 10.6%,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이전한 업체는 6.4%이다. 이는 김해, 양산 등 중소도시 지역이 부산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교외지역

을 형성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입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서울은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의 3/4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은 경기도로서 서울의 1/4 수준이다.

또 이전 기업의 전출지와 규모를 비교해보면 창원, 마산지역과 김해, 양산, 밀양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점이 발견된다.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기업의 경우 4-29인 사이의 중간 기업의 비율이 다소 높다. 이에 대해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이전에 있어서 기업 규모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부산지역 전입 기업의 업종과 전출지 간의 특징을

표 7. 부산지역 전입 기업의 규모별 진출지 특성

전출지역		기업규모		1-3인	4-9인	10-29인	30-100인	100인 이상	계
		대도시 지역	울산						
근거리 (인근지역내) 이전	대도시 지역	울산	21 8.5	8 4.9	1 1.6	1 4.8	1 12.5	32 6.4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창원·마산	20 8.1	19 11.5	8 13.1	4 19.0	2 25.0	53 10.6	
		양산·김해	77 31.2	41 24.9	17 27.9	10 47.6	2 25.0	147 29.3	
		소계	97 39.3	60 36.4	25 41.0	14 66.7	4 50.0	200 39.8	
	계		118 47.8	68 41.2	26 42.6	15 71.4	5 62.5	232 46.2	
중거리 (영남지역내) 이전	대도시 지역	대구	12 4.9	3 1.8	1 1.6	1 4.8	0 0.0	17 3.4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서부 경남	12 4.9	9 5.5	23 5.5	0 0.0	2 25.0	25 5.0	
		경북	14 5.7	6 3.6	0 0.0	1 4.8	0 0.0	21 4.2	
		소계	26 10.5	15 9.1	2 3.3	1 4.8	2 25.0	46 9.2	
	계		38 15.4	18 10.9	3 4.9	2 9.5	2 25.0	63 12.5	
원거리 (전국적 범위) 이전	거대도시 (수도권) 지역	서울	55 22.3	47 28.5	20 32.8	3 14.3	1 12.5	126 25.1	
		인천	5 2.0	8 4.8	2 3.3	0 0.0	0 0.0	15 3.0	
		경기	15 6.1	9 5.5	7 11.5	1 4.8	0 0.0	32 6.4	
		소계	75 30.4	64 38.8	29 47.5	4 19.0	1 12.5	173 34.5	
	대도시 지역	광주	5 2.0	13 7.9	1 1.6	0 0.0	0 0.0	19 3.8	
		대전	2 0.8	0 0.0	1 1.6	0 0.0	0 0.0	3 0.6	
		소계	72 0.6	13 7.9	2 3.3	0 0.0	0 0.0	22 4.4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비영남 권, 비수도권, 비대도시지역)		9 3.6	2 1.2	1 1.6	0 0.0	0 0.0	12 2.4	
	계		91 2.4	79 47.9	32 52.5	4 19.0	1 12.5	207 41.2	
	총계			247 100.0	165 100.0	61 100.0	21 100.0	8 100.0	502 100.0



표 8. 부산지역 전입기업의 업종별 전출지역

전출지역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계
근거리 (인근 지역내) 이전	대도시 지역	울산	5 5.6	10 7.9	7 5.7	2 7.1	0 0.0	6 7.2	2 4.1	32 6.4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창원·마산	10 11.2	11 8.7	14 11.5	7 25.0	1 20.0	5 6.0	5 10.2	53 10.6
		양산·김해	42 47.2	30 23.8	33 27.1	11 39.3	0 0.0	13 15.7	18 36.7	147 24.3
		소계	52 58.4	41 32.5	47 38.5	18 64.3	1 20.0	18 21.7	23 46.9	200 39.8
	계		57 64.0	51 40.5	54 44.3	20 71.4	1 20.0	24 28.9	25 51.0	232 46.2
중거리 (영남 지역내) 이전	대도시 지역	대구	4 4.5	3 2.4	2 1.6	1 3.6	0 0.0	1 1.2	6 12.2	17 3.4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서부 경남	2 2.2	14 11.1	2 1.6	1 3.6	0 0.0	1 1.2	5 10.2	25 5.0
		경북	6 6.7	7 5.6	4 3.3	0 0.0	0 0.0	3 3.6	1 2.0	21 4.2
		소계	8 9.0	21 16.7	6 4.9	1 3.6	0 0.0	4 4.8	6 12.2	46 9.2
	계		12 13.5	24 19.1	8 6.6	2 7.1	0 0.0	5 6.0	12 24.5	63 12.5
원거리 (전국적 범위) 이전	거대도시 (수도권) 지역	서울	7 7.9	12 9.5	51 41.8	2 7.1	3 60.0	43 51.8	8 16.3	126 25.1
		인천	3 3.4	7 5.6	1 0.8	0 0.0	0 0.0	3 3.6	1 2.0	15 3.0
		경기	6 6.7	11 8.7	5 4.1	2 7.1	1 20.0	6 7.2	1 2.0	32 6.4
		소계	16 18.0	30 23.8	57 46.7	4 14.3	4 80.0	52 62.7	10 20.4	173 34.5
	대도시 지역	광주	2 2.5	13 10.3	0 0.0	0 0.0	0 0.0	2 2.4	2 4.1	19 3.8
		대전	0 0.0	1 0.8	0 0.0	2 7.1	0 0.0	0 0.0	0 0.0	3 0.6
		소계	2 2.5	14 11.1	0 0.0	2 7.1	0 0.0	2 2.4	2 4.1	22 4.4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비영남권, 비수도권, 비대도시지역)		2 2.5	7 5.6	3 2.5	0 0.0	0 0.0	0 0.0	0 0.0	12 2.4
	계		20 22.5	51 40.5	60 49.2	6 21.4	4 80.0	54 65.1	12 24.5	207 41.2
	총계			89 100.0	126 100.0	122 100.0	28 100.0	5 100.0	83 100.0	49 100.0

표 9. 부산지역 전입기업의 업종별 전출지 특성

업종 전출지역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계
거대도시 (수도권) 지역	16 18.0	30 23.8	57 46.7	4 14.3	4 80.0	52 62.7	10 20.4	173 34.5
대도시지역	11 12.0	27 21.4	9 7.4	5 17.9	0 0.0	9 10.8	10 20.4	71 14.1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62 70.0	69 54.8	56 45.9	19 67.8	1 20.0	22 26.5	29 59.2	258 51.4
계	89 100.0	126 100.0	122 100.0	28 100.0	5 100.0	83 100.0	49 100.0	502 100.0

살펴보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의 경우 금융, 보험, 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으며 다음은 도소매업이었다. 이에 대해 여타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데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서울의 경우 금융, 보험, 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는데 대해 인천과 경기도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거리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역 내 기업의 부산지역 전입에 있어서는 건설업의 전입비율이 높다. 하지만 다른 업종은 거의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출지의 도시규모에 따른 업종특성을 고찰해보면 거대도시인 수도권으로부터 균일한 업체는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비율이 현저히 높는데 대해 대도시 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기업들은 특별한 업종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단연 높고 다음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

### 3) 부산지역 전출기업의 업종, 규모 및 전입지역 특성

부산지역으로부터 전출한 기업의 대다수는 부산 인근의 근거리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전입하고 있다. 부산 인근 지역이 전체의 66.1%를 차지하고 수도권

으로 이전한 기업이 2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근거리 이전한 기업 중에서는 김해, 양산 등 중소도시에서 이전한 경우가 48.1%인데 비해 창원, 마산 등 중도시로의 이전 업체가 11.3%,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이전한 업체는 6.7%이다. 이는 부산에 전입한 기업들의 전출지 특성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더욱 집중된 분포이다. 기업들이 부산에서 김해, 양산 등 인근의 중소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일종의 교외화로 본다면 전산업 부문에서 교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근의 대도시나 중도시 지역으로의 이전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산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대해 울산과 창원 지역의 경제상황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로 전입한 기업의 비중이 단연 높다. 서울은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은 경기도로서 서울의 16% 수준이다. 또 이전 기업의 규모를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의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 근거리 이전 기업의 경우 소기업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양산, 김해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중거리 이전 기업들 중에는 대구로 전출한 기업의 규모가 컸으며 서부 경남이나 경북으로 이전



표 11. 부산지역 진출기업의 업종별 전입지역

전입지역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계
근거리 (인근 지역내) 이전	대도시 지역	울산	7 3.3	8 7.9	8 5.4	83 15.8	0 0.0	7 7.4	10 17.5	43 6.7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창원·마산	22 10.2	15 14.9	13 8.8	4 21.1	0 0.0	9 9.5	9 15.8	72 11.3
		양산·김해	150 69.8	29 28.7	70 47.3	7 36.8	4 80.0	28 29.5	20 35.1	308 48.1
		소계	172 80.0	44 43.6	83 56.1	11 57.9	4 80.0	37 39.0	29 50.9	380 59.4
	계	179 83.3	52 51.5	91 61.5	14 73.7	4 80.0	44 46.3	39 68.4	423 66.1	
중거리 (영남 지역내) 이전	대도시 지역	대구	5 2.3	6 5.9	5 3.4	2 10.5	0 0.0	3 3.2	4 7.0	25 3.9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서부 경남	5 2.3	15 14.9	8 5.4	1 5.3	0 0.0	1 1.1	2 3.5	32 5.0
		경북	9 4.2	6 5.9	0 0.0	1 5.3	0 0.0	3 3.2	0 0.0	19 3.0
		소계	14 6.5	21 20.8	8 5.4	2 10.5	0 0.0	4 4.2	2 3.5	51 8.0
	계	19 8.8	27 26.7	13 8.8	4 21.1	0 0.0	7 7.4	6 10.5	76 11.9	
원거리 (전국적 범위) 이전	거대도시 (수도권) 지역	서울	11 5.1	11 10.9	37 25.0	1 5.3	1 20.0	40 42.1	7 12.3	108 16.9
		인천	0 0.0	5 5.0	2 1.4	0 0.0	0 0.0	0 0.0	2 3.5	9 1.4
		경기	4 1.9	5 5.0	4 2.7	0 0.0	0 0.0	4 4.2	2 3.5	19 3.0
		소계	15 7.0	21 20.8	43 29.1	1 5.3	1 20.0	44 46.3	11 19.3	136 21.3
	대도시 지역	광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비영남권, 비수도권, 비대도시지역)		2 0.9	1 1.0	1 0.7	0 0.0	0 0.0	0 0.0	1 1.8	5 0.8
	계	17 7.9	22 21.8	44 29.7	1 5.3	1 20.0	44 46.3	12 21.1	141 22.0	
	총계		215 100.0	101 100.0	148 100.0	19 100.0	5 100.0	95 100.0	57 100.0	640 100.0

표 12. 부산지역 전출기업의 업종별 전입지역 특성

업종 전입지역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계
거대도시 (수도권) 지역	15 7.0	21 20.8	43 29.1	1 5.3	1 20.0	44 46.3	11 19.3	136 21.4
대도시지역	12 5.6	14 13.9	13 6.0	5 26.3	0 0.0	10 10.5	14 24.6	68 10.6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188 87.4	66 65.3	92 42.8	13 68.4	4 80.0	41 43.2	32 56.1	436 68.0
계	215 100.0	101 100.0	148 100.0	19 100.0	5 100.0	95 100.0	57 100.0	640 100.0

한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부산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지역 전출 기업의 전입지역을 업종 특성과 비교해보면 근거리 지역의 경우 제조업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부산지역에서 전출한 제조업체들은 특히 김해, 양산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교외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 창원, 마산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았고 다음은 사업서비스업이었다.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은 도소매업이었다. 이에 대해 여타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그런데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서울의 경우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는데 대해 인천, 경기도는 건설업체의 전입 비율이 높았다.

부산에서 여타 대도시 지역으로 전출한 기업들은 운수·창고·통신업 비율이 높은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업의 비율이 낮았으며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기업은 제조업과 금융·보험·부동산업의 비중이 단연 높았다.

#### 4) 분석 결과의 종합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의 이전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의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산지역은 전출기업 수가 전입에 비해 약 30% 많으며 이는 부산지역 산업의 공동화 혹은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산지역 기업의 전출 초과현상이 양산, 김해, 창원, 마산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의 교외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지역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전의 빈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력모형 등 인구이동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부산지역 기업의 이전은 부산 대도시권 내의 근거리 이전과 수도권과의 원거리 이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출 및 전입의 경우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 창원, 마산 간의 전출입은 김해, 양산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바, 거리 및 도시 규모와 이전 빈도가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근거리 이전에 있어서는 울산과 같은 대도시권으로의 이전보다는 김해, 양산 등 인근 중소도시 지역과의 이전이 활성화되어 있다. 즉, 양산, 김해,

표 13. 부산지역 진출입 업체의 이전 특성 종합

이전거리 이전방향	근거리 이전(대도시권 내)			중거리 이전(영남지역 내)			원거리 이전(전국적 범위)			계
	전입	전출	소계	전입	전출	소계	전입	전출	소계	
집중화	200	0	200	46	0	46	12	136	148	394
	86.2	0.0	30.5	73.0	0.0	33.1	5.8	96.5	40.5	34.5
수평이동	32	43	75	17	25	42	22	0	22	139
	13.8	10.0	11.5	27.0	32.9	30.2	10.6	0.0	6.3	12.2
분산화	0	380	380	0	51	51	173	5	178	609
	0.0	90.0	58.0	0.0	67.1	36.7	83.6	3.5	51.2	53.3
계	232	423	655	63	76	139	207	141	348	11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밀양 일원이 부산 대도시권에 직접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반면, 울산과 창원, 마산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분야에서 보다 두드러지는바 일종의 교외화 현상으로 이해된다.

넷째, 부산과 여타 광역시 간의 수평적 이동이 적는데 대해 수도권과 같은 거대도시 지역, 혹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현저히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진출입 특성, 업종, 기업규모, 거리 변수 등과 관계없이 나타났다. 특히, 근거리 이동의 경우 분산화 경향이 현저하였으며 중거리 이동에서는 집중화와 분산화, 수평이동이 상대적으로 비슷하였다. 이에 대해 원거리 이동은 그 중간정도의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원거리 지역의 경우 대도시 지역이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진출입 비율이 매우 낮아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는 자체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산에서 진출한 기업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이 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으로 전입한 기업은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역외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여타 부문은 전입과 전출 기업 간

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섯째, 부산지역 진출입 제조업체의 대다수가 기계금속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바, 부산지역 제조업이 신발, 봉제, 의류, 섬유 등 경공업으로부터 기계금속 등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출업체와 전입업체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다만 신발 등 섬유, 의복, 가죽산업의 교외지역으로의 이전이 두드러졌다.

일곱째, 부산지역 전입기업과 전출기업 간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접근한다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거리 전입기업의 경우 중·대형 기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원거리 전입에서는 중소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지역 전출기업은 근거리 이전에 있어 소기업의 비율이 다소 높고 원거리 이전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체의 교외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이 근거리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4. 맺으며

본 연구는 부산지역 진출입 기업들의 이전(혹은 재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거리와 이전 지역의 특성(이동방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이것들과 기업들의 자체 특성을 비교·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은 전출 기업 수가 전입기업 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교외화 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수도권과의 기업이동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이전의 빈도는 거리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중력모형 등 인구이동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기업 이전의 방향은 광역시 간의 수평적 이동이 적는데 대해 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현저히 많았고 이러한 현상은 거리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그것의 함의는 향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부산지역으로부터 국내의 여타지역으로 전출입한 기업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으로부터 해외로 이전한 기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부산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한 바 이러한 현상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산업분류상의 한계로서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가 표준산업분류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상당부분에 걸쳐 자료의 재분류와 가공이 불가피하였다. 연구자들이 자료의 재분류과정에서 최대의 오류를 줄이려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셋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업의 이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즉 부산지역 기업의 지역간 이동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남철, 2006,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지리학연구* 40(3), pp. 353-366
- 이한일·이변송, 2000, “수도권내 이전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37(7), pp. 103-116
- 정수연, 2008, “한국 상장, 코스닥 기업의 입지이전 결정요인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4(1), pp. 65-80
- 한국근로복지공단, 기업이전 관련 내부자료
- Audretch, D., 1995, *Innovation and Industrial Evolu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Belderbos, R. and M. Carree, 2002, “The location of Japanese investments in China : Agglomeration effects, Keiretsu and firm heterogeneity”,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16, 194-211
- Carlton, D., 1983, “The location and employment choices of new firms : An econometric model with discrete and continuous endogenous variabl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pp. 440-449
- Carod, M. J. & Antolin, M. C., 2004, “Firm size and geographical agglomeration : Empirical appraisal in industrial loc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22, pp. 299-312
- Erickson R, A. and Wasylenko M., 1980, “Firm relocation and site selection in suburban municipal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8, pp. 69-85.
- 교신 : 권오혁,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 인문사회대 경제학부, Tel: 051-629-5327, Fax: 051-629-5315, E-mail: okwon@pknu.ac.kr
- Correspondence : Ohyeok Kwon, Department of Economics, Pukyung National University, Daeyeon-dong, Nam-gu, Busan, Korea, Tel: 051-629-5327, Fax: 051-629-5315, E-mail: okwon@pknu.ac.kr

최초투고일 2008년 8월 14일

최종접수일 2008년 9월 4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1, No.3, 2008(412~427)*

## **An Analysis of Firm Relocation into or out of Busan Metropolitan Region and De-industrialization**

Ohyeok Kwon\* · Hongbong Choi\*\* · Eun Young Kim\*\*\*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relocation into or out of Busan Region. Especially, it analyses the relation between relocated regions, firms' sizes and industrial sectors of the relocated firms systematically. For this, examinations of former studies about firm relocations, forming of analy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were done. In short, this analysis figures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irms' characteristics and relocations.

**Keywords** : firm relocation, de-industrialization, suburbanization, Busan metropolitan region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u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ung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ung National University